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일본은행, 내년도 물가상승률 마이너스 전망

- 일본은행은 이번달 말 발표할 '2011년 경제전망보고서'에서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짐.
 - 10월 28일에 발표될 '2011년 경제전망' 보고서에 따르면, 내년도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.
 - 최근(올해 4월)까지도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0.1%로 예상한 일본은행이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.
 - 이에 앞서 일본경제기획협회가 발표한 10월 ESP경기전망조사(민간 경제학자 42명의 경제 관련 예측조사)에서도 2011년 2분기(4~6월)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-0.06%를 기록해 9월 조사에 이어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임.

- 정부의 제로금리정책과 강도 높은 추가 양적완화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둔화 및 불확실성 증대, 엔화강세로 인한 소비재가격 하락, 내수경기 침체 등은 디플레이션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음.
 - 최근 제로금리 및 추가 양적완화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국, 유럽 등 주요국들의 경기 둔화 조짐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, 엔화강세 지속으로 수입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비재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상인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.
 - 일본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물가하락이 경기악화로 이어지고 다시 물가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'디플레 스파이럴(Deflation spiral)'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.
 -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물가상승률이 2% 수준이 될 때까지 국채와 상장투자신탁(ETF) 등의 매입을 위해 5조엔 규모의 펀드를 설립하는 등의 양적완화책을 당분간 시행하겠지만 현재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임.

(FujiSankei Business I, 10/20)